

# 모의고사 지문 분석

# 이 감

## 부록

2023학년도 시준6 제3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 도덕적, 법적 책임에 대한 신경 윤리학의 논의

### 지문 평가

특히 (가)에서 '신경 윤리학이 어떻게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의 주장과 '내재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분명한 초점으로 삼아 정보를 처리했다면 수월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문을 이해하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 Keyword

#### (가) 인문 - 윤리학 - 신경 윤리학

신경 윤리학, 도덕 실재론자, 그린, 간접 딜레마, 직접 딜레마, 감정 영역, 내재주의

#### (나) 사회 - 법학 - 법적 책임

범의, 심신 상실자, 덴노, 모스, 가지니가, 응보주의, 결과주의

### (가) 문단 1 신경 윤리학의 문제 제기

1) 뇌 과학을 토대로 윤리 문제를 뇌의 반응과 관련지어 탐구하는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법적 책임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새 과제를 부여한다.

▶ '신경 윤리학'에 대한 정의다. '뇌의 반응'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기반으로 도덕적, 법적 책임과 같은 '윤리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2) 가령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은 도덕적 판단이 논리적 판단과 달리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재하는 사물이 곧바로 지각되는 것처럼 도덕 역시 우리의 마음에 독립하여 실재하므로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 판단이 **논리적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한다.

▶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이들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다른 유형의 판단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다.

1. 도덕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과 달리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2. 실재하는 사물은 '즉각적으로' 지각된다.
3. 그렇다면 도덕도 마치 사물처럼 독립하여 실재할 것이다.
4. 도덕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3) 신경 윤리학자 **그린**은 간접 딜레마와 직접 딜레마에 관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 연구를 통해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 **맥락 짚기** ▶ 신경 윤리학의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판'의 상황에서는 비판하는 관점이 비판되는 관점의 어떤 논거를 공격하는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초점으로 삼아 (가)의 내용을 이해하자.

### (가) 문단 2 간접 딜레마와 직접 딜레마

1) **간접 딜레마**는 예컨대 고장 난 기차가 다섯 사람을 향해 올 때 **버튼**을 눌러 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일명 트롤리 딜레마라 불린다.

▶ '간접 딜레마'는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단 '버튼'을 통하므로 희생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직접 딜레마**는 육교 위 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면 기차를 멈출 수

있어서 다섯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둘 모두 한 사람을 희생시킬지에 관한 상황이지만, 직접 딜레마는 **본인이 직접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맥락 짚기** ▶ '직접 딜레마'의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시를 활용하되,

그래서 '간접 딜레마'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직접 딜레마' 또한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에는 직접 위해를 가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흔히 간접 딜레마에서는 한 사람의 희생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직접 딜레마에서는 **직접 희생시키는 일을 거부하려는 감정의 영향**으로 인해 그러하지 않다.

▶ 간접 딜레마와 직접 딜레마의 차이점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직접 위해를 가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직접 희생시키는 일을 거부하려는 감정에 의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 (가) 문단 3 도덕 실재론에 대한 그린의 반박

1) 그린의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 **감정 영역**은 간접 딜레마에서보다 직접 딜레마에서 더 많이 활성화된다.

▶ 딜레마 상황에서의 '뇌의 반응'에 대한 연구다. 이는 신경 윤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바이다[문단-1)].

▶ 직접 딜레마에서 감정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직접 희생시키는 일을 거부하려는 감정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직접 딜레마 : 감정의 영향↑ ⇨ 감정 영역의 활성화↑  
간접 딜레마 : 감정의 영향↓ ⇨ 감정 영역의 활성화↓

2) 그리고 직접 딜레마에서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간접 딜레마에서처럼 판단 시간이 짧았으나, 감정에 배치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간접 딜레마에서와 달리 판단 시간이 길었다.

▶ 간접 딜레마의 경우에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항상 판단 시간이 짧은 반면, 직접 딜레마의 경우에는 감정에 배치될 때 판단 시간이 길어진다.

| 직접 딜레마 |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 | 감정에 배치되는 판단 |
|--------|-------------|-------------|
|        | 판단 시간↓      | 판단 시간↑      |

▶ **주목** ▶ '판단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신경 윤리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직접 딜레마에서 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린은 **감정 반응과 인지 반응 간의 갈등이 일어난 후 갈등이 해소되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도덕적 판단이 항상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직접 딜레마+감정에 배치되는 판단'의 경우에 판단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도덕적 판단이 항상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4) 그린은 갈등이 포함되는 경제적 의사 결정의 상황에서도 인지 영역을 포함한 뇌의 반응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판단은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도덕적 판단이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판단하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이다.

➡ 문단-2)의 논리적 흐름과 구분하여 그림의 주장을 이해하자. 도덕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1. 도덕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과 달리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실재하는 사물은 항상 '즉각적으로' 지각된다.
3. 그렇다면 도덕은 사물과 달리 독립하여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4. 도덕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가) 문단 4 내재주의에 대한 신경 윤리학의 의문

1) 한편 일부 신경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판단은 다른 판단과 달리 그 자체에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도덕적 판단이 곧 도덕적 행위를 일으킨다는 **내재주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내재주의에 따르면 물건을 훔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실제로 그러한 동기를 지녀서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맥락 짚기** ▲ 문단에서 제기된 논의는 일단락되고 또 다른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앞서 신경 윤리학의 입장에서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면, 이번에는 '내재주의'의 주장을 비판할 것이다.

➡ '내재주의'의 주장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도덕적 판단만의 특별함'을 주장하려는 입장인 셈이다.

도덕적 판단은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도덕적 판단이 곧 도덕적 행위를 일으킨다.

2) 만일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사례들이 fMRI를 통해 확인[→ 뇌의 반응]된다면 도덕적 판단이 다른 판단과 달리 동기를 포함한다는 이 주장은 반박될 것이다.

➡ '내재주의'의 주장이 신경 윤리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다.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도덕적 판단이 확인된다면 '내재주의'의 주장은 반박된다.

➡ 앞서 '일부 도덕 실재론자들의' 경우와 달리 '내재주의'를 비판하는 신경 윤리학의 논리는 지문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공백은 통상 <보기>에서 해소되기 마련이다.

**주목** ▲ 신경 윤리학의 주장을 요약하면, 도덕적 판단은 다른 종류의 판단과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점을 인정된 상태에서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문단-1)].

#### (나) 문단 1 뇌 손상 환자의 법적 책임 문제

1) 형법의 중심 원리는 '정신이 유죄가 아니면 행위도 범죄일 수 없다.'라는 격언에 잘 드러나 있다. 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인 **범의(犯意)**를 지녀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맥락 짚기** ▲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며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의 초점이 '도덕적 책임'에서 '법적 책임'으로 넘어왔음을 인지하자[(가)의 문단-1)].

➡ 형법에서는 범죄의 의도, 즉 '범의'의 존재 여부를 처벌의 조건으로 삼는다. 똑같이 사람이 죽었다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같아도] 살인과 치사가 구분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범의 ○ ⇨ 처벌 가능  
범의 × ⇨ 처벌 불가능

2) 그렇다면 뇌 손상을 입어서 도덕적 판단이 힘들거나, 도덕적 판단을 하더라도 도덕적 행위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뇌 손상'에 의해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행위가 어려운 이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뇌 손상'은 분명 (가)에서 살핀 신경 윤리학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3) 뇌 과학에 따르면 대뇌의 특정 부분만 손상된 이들인 VM 환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충동에 지배되며 자기 통제를 못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기 힘들어하곤 한다.

➡ 'VM 환자'는 도덕적 판단을 하더라도 도덕적 행위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4) 그런데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인해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인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 같은 것이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 당시에 의식이 있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 우리 형법에서는 심신 장애로 인한 '심신 상실자'의 범죄 행위를 법적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본다. 1)의 중심 원리에 따라 범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VM 환자와 같이 뇌가 손상된 사람의 범죄 행위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 (나) 문단 2 신경 윤리학자들의 관점

1) 그래서 **덴노**는 뇌 손상으로 인한 자율성 상실의 유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자유 의지[→ 범의]에 기대지 않는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半)자율적 행위를 범주에 추가하는 방식으로라도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 '덴노'는 문단-4)의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VM 환자와 같은 경우에도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2) **모스** 역시 **고의성과 같은 마음의 영역은 현재의 뇌 과학으로 밝히기 힘들다**고 보고 뇌 과학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정신 상태보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모스' 역시 덴노처럼 뇌 손상 환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목** ▲ 이들의 입장은 오늘날의 '뇌 과학의 발달 수준'과 관련이 깊다. 오늘날의 뇌 과학 수준에서는 가령 VM 환자에게 '범죄 의도'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자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의도를 직접 확인할 수 없더라도 '행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3) **가자니가**도 뇌 과학적 지식과 법적 판단의 차원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행위를 뇌의 반응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단지 하나의 뇌 차원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법적 책임은 뇌 손상이나 충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행한 행위에 부여된다.

➡ 지금까지 등장한 관점들은 모두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려야 한다고 본다.

| 덴노                             | 모스                            | 가자니가                           |
|--------------------------------|-------------------------------|--------------------------------|
| 자유 의지에 기대지 않는 기준으로 법적 책임 판단 필요 | 정신 상태보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 판단 필요 | 개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 판단 필요 |

**(나) 문단 3) 응보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변화**

- 이렇듯 신경 윤리학자들 사이에는 뇌 과학적 지식과 책임의 문제를 분리하여 봐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 문단2에서 살펴본 입장들은 모두 신경 윤리학에 속한다. 뇌 과학을 토대로 윤리 문제를 다루는 이들이(가)의 문단-1) 오늘날 뇌 과학 발달 수준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이 나뉠 특이하다.
- 이에 따르면 최소한 기존 법체계에서의 응보주의, 즉 범죄에 응당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관점은 재고될 것이며,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인 처벌보다 .....
  - '응보주의'는 기존 법체계, 즉 법의를 중시하는 형법 체계에서 통용되는 관점이다(문단-1). 법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응보가 곧 처벌의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 ..... 처벌이 주는 위협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는 결과주의로 옮겨 갈 것이라 전망된다.
  - 신경 윤리학의 지배적인 관점을 수용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법의의 존재 여부를 근거로 처벌을 가할 수가 없다. 실령 법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과주의'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응보주의'는 존립할 수가 없게 된다.
- 다만 향후 뇌 과학의 발달이 논의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 물론 뇌 과학이 발달하면 지금까지 몰랐던 뇌의 반응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다. 향후 뇌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게 되면, 뇌 손상 환자들에 대해서도 법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기> 분석

**<보기>문단**

'도덕적 행위 K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는 다른 판단과 달리 K를 하려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내재주의라는 명제 X와 관련하여 '보통 사람들'과 'VM 환자들'[→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을 대상으로 fMRI 실험[→ 뇌의 반응 확인]을 했다. '실험 대상들의 특징'과 '실험 결과'를 보고 의견을 제시해 보자.

예상대로 '내재주의'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험이 주어졌다(가)의 문단4-2). 만약에 명제 X가 참이라면 내재주의의 주장도 참이 되고, 거짓이라면 내재주의의 주장도 거짓이 된다. 실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 실험 대상들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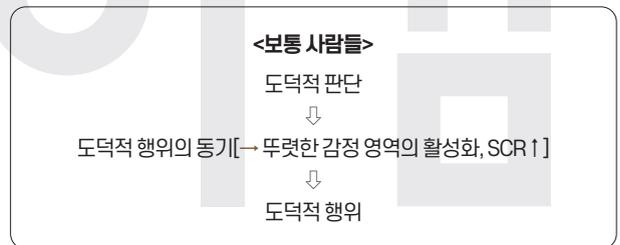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VM 환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fMRI로 보아 도덕적 판단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부위도 동일하다. 다만 VM 환자들은 직접 딜레마에서 대체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판단을 쉽게 내리는 편이다.

VM 환자들끼리 직접 딜레마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판단을 쉽게 내리는 것은, 그러한 희생을 거부하려는 감정의 영향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가)의 문단2-3). 감정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는 것이다.

**주목** ▲ VM 환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항상 '도덕적 행위'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나)의 문단-3). 만약에 도덕적 판단에 도덕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도덕적 판단은 반드시 도덕적 행위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도덕적 판단을 하더라도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VM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명제 X의 거짓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왜 VM 환자들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실험 결과'를 통해 찾아내야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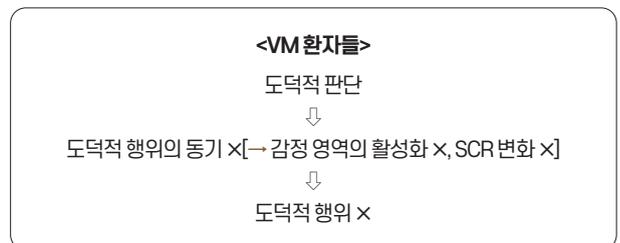
**• 실험 결과**

-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하고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있을 때에, 특히 직접 딜레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감정 경험을 뚜렷이 하면서 피부 전도 반응(SCR)이 증가했다.
  - 보통 사람들의 경우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신체 반응은 '감정 경험, SCR의 증가'이다. 즉 '감정 경험, SCR의 증가'가 확인되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만약에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항상 '감정 경험, SCR의 증가'가 확인되면 명제 X는 참이 될 것이다. 도덕적 판단 시에 반드시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함께 유발되어서, 도덕적 판단에는 그 도덕적 행위를 하려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 다만 직접 딜레마에서의 판단 시에 감정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가)의 문단3-1)과 이때의 감정 경험은 분명히 구분된다. 이때의 감정 경험은 도덕적 판단을 이미 한 뒤 행위를 하려 할 때에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이루어지는 '감정 영역의 활성화'는 '도덕적 동기'를 보여 주는 것이지, '도덕적 판단을 하기 전에' 감정 반응과 인지 반응 사이의 갈등이 유발되어 나타나는 감정 영역의 활성화[→ 이는 '감정에 배치하는 판단'에 대해서만 나타난다는 점도 이 둘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와는 서로 다른 것이다.



- 이와 달리 VM 환자들은 직접 딜레마든 간접 딜레마든 도덕적 판단 시에 SCR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fMRI에서 뇌의 감정 영역도 보통 사람들과 달리 활성화되지 않았다.

**주목** ▲ 반면 VM 환자들의 경우에는 도덕적 판단 시에 '감정 경험, SCR의 증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도덕적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VM 환자들의 사례를 근거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별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감정 경험, SCR의 증가'[→ 도덕적 동기 유발]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실험 결과에 대한 의견 :

∴ VM 환자들은 분명 보통 사람들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즉 이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제 X는 거짓이 되고, 도덕적 판단은 다른 판단들과 마찬가지로 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된다[(가)의 문단4-2]}. 따라서 ③번 선지가 적절하다.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포함하지 않는 도덕적 판단이 확인된다면 '내재주의'의 주장은 반박된다.

▶ 한편, ②번 선지를 보면 'VM 환자들은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판단을 쉽게 내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A.이는 VM 환자들의 경우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에 '직접 희생시키는 일을 거부하려는 감정의 영향'이 적음을 의미한다. '감정 반응과 인지 반응 사이의 같음을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도덕적 판단을 VM 환자들이 쉽게 내릴 수 있는 이유에 불과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에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명제 X의 참, 거짓을 뒷받침할 수가 있다. 즉 B.도덕적 판단 시에 VM 환자들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음을 '감정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명제 X의 거짓이 뒷받침되는 것이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A와 B가 논리적으로 별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A에서 '도덕적 판단으로 인한 감정 영역의 활성화'는 VM 환자들에 대해서 덜 이루어질 뿐이다. 반면 B에서 '도덕적 동기를 보여 주는 감정 영역의 활성화'는 VM 환자들에 대해서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10~13] 과학

## 공포 조건화의 원리

### 지문 평가

과정 중심의 치밀한 생리학 지문이다. 우선 '공포 조건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그에 앞서 각각 'CS'와 'US'에 의해 어떻게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지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생리학 지문답게 생소한 개념들이 여럿 등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는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보자.

Keyword

과학 - 생리학 - 공포 조건화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공포 조건화, 뇌 가소성, 외측핵, 시냅스, 시냅스 전막, 시냅스 후막, 글루타메이트, AMPA 수용체, 나트륨 양이온, 탈분극, NMDA 수용체, 칼슘 양이온, 중심핵, L-VGCC, 장기강화, 소거, 소거 기억, ITC 세포군, 가바

### 문단 ① 공포 조건화

1) 전기 자극처럼 공포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US)**이라 한다. 시계 소리처럼 그 자체로 공포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인 **조건 자극(CS)**이 US와 함께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이후에 CS만 주어져도 신체가 경직되는 등의 공포 반응이 나타난다.

▶ '무조건 자극(CS)'과 '조건 자극(US)'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개념에 대해 공포 반응의 유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US : 공포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
- CS : 공포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

▶ 두 자극이 함께 주어지는 'US+CS'의 경우에도 공포 반응이 유발된다. 본래 US가 주어지는 경우에 공포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 다만 'US+CS'가 반복된 이후에 'CS'만 주어져도 공포 반응이 유발된다는 점은 특별하다. CS는 본래 공포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이기 때문이다.

2) 이는 파블로프가 발견한 고전적 조건화의 사례로, 오늘날 '뇌 가소성'에 기인하는 **공포 조건화**임이 밝혀졌다. **뇌 가소성**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뇌의 부위에서 신경 세포인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연결이 나타나는 성질을 말한다.

▶ 이때 공포 조건화(→ CS로 인한 공포 반응)는 CS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US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뇌 가소성'은 [CS가 아니라] US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맥락 짚기** ▲ '뇌 가소성'의 정의를 근거로 US가 '뉴런 간의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 문단 ② CS와 US의 전달 과정

1) 감각 신경을 통해 유입된 CS는 비교적 약한 자극으로, 감각 정보를 중계하는 간뇌의 시상을 거쳐 편도체의 **외측핵**에 도달한다. 편도체는 뇌에서 학습이나 기억, 감정과 관련한 정보 처리를 하는 곳이다.

▶ 'CS'의 전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의 순서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감각 신경 ⇨ 간뇌의 시상 ⇨ 편도체의 외측핵

2) US도 감각 신경을 통해 유입되지만 강한 자극이어서 척수-시상 경로를 통해 시상을 거쳐 외측핵으로 빠르게 전달된다.

▶ 'US'의 전달 과정을 정리하되, CS의 전달 과정과 비교해야 한다.

감각 신경 ⇨ 간뇌의 시상[→ 척수-시상 경로] ⇨ 편도체의 외측핵

▶ 기본적으로 US는 '감각 신경, 간뇌의 시상, 편도체의 외측핵'을 거친다는 점에서 CS와 다르지 않다. 다만 '척수-시상 경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3) 특정 CS나 US는 모두 외측핵에서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유발하면서 신호 전달의 특정 경로로 전달되는데, 동일한 CS나 US가 도달할 때마다 동일한 경로로 신호가 전달된다.

▶ CS, US 모두 최종적으로 '편도체의 외측핵'에 도달하면, 외측핵에서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때 자극의 종류에 따라 그것이 전달되는 경로도 달라진다. 가령 전기 자극에 의한 US가 외측핵에 도달한다면, 항상 동일한 경로로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 즉 외측핵에 도달한 자극은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유발한다. 이는 지문의 초점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문단1-2]. 특히 US에 의해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뉴런은 신경 세포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부위인 축삭 돌기와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위인 가지 돌기가 뿔어 나온 구조를 띤다. 인접한 두 뉴런에서는 시냅스라는 미세한 틈 사이에 두고 한 뉴런의 축삭 돌기 말단인 시냅스 전막과 다른 뉴런의 가지 돌기 말단인 시냅스 후막이 근접해 있다.

▶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설명하기에 앞서 '뉴런'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신호 전달'이라는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호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축삭 돌기의 시냅스 전막 ⇨ 가지 돌기의 시냅스 후막

**문단 3 CS에 의한 뉴런 간의 신호 전달**

1) CS가 외측핵의 한 뉴런[→ 뉴런 1]에 전달되면, 시냅스 전막에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시냅스를 가로질러 인접한 뉴런[→ 뉴런 2]의 시냅스 후막에 분포하는 AMPA 수용체와 결합한다.

▶ '신호 전달'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설명이다. 편의상 뉴런 1에서 뉴런 2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하자.

2) 그러면 그 AMPA 수용체는 나트륨 양이온을 해당 뉴런[→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 2]에 유입시켜 탈분극을 일으킨다. 탈분극이란 세포막 내부의 전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탈분극에 의해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칼슘 양이온도 유입되는데, ……

▶ 맥락 짚기 X 연쇄적인 과정과 여러 개념들이 제시되는 부분은 단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CS에 의한 뉴런 1에서 뉴런 2로의 신호 전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S가 뉴런 1에 주어진  
 ⇨ 뉴런 1의 시냅스 전막에서 글루타메이트 방출  
 ⇨ 뉴런 2의 시냅스 후막에서 글루타메이트가 AMPA 수용체와 결합  
 ⇨ 뉴런 2에 나트륨 양이온 유입  
 ⇨ 뉴런 2의 탈분극  
 ⇨ 뉴런 2의 NMDA 수용체 활성화  
 ⇨ 뉴런 2에 칼슘 양이온 유입

3) …… 칼슘 양이온은 인접한 뉴런으로의 연속된 신호 전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뉴런 2에 유입된 '칼슘 양이온'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뉴런 1에서 뉴런 2로 신호가 전달되면 끝이 아님을 내포한다. 그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가령 뉴런 N으로까지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CS가 뉴런 1에 주어진 ⇨ 뉴런 1에서 뉴런 2로의 신호 전달 ⇨ 뉴런 2에서 뉴런 3으로의 신호 전달 ⇨ 뉴런 3에서 뉴런 4로의 신호 전달 ⇨  
 :  
 ⇨ 뉴런 N에 신호 전달

4) US가 외측핵의 한 뉴런에 전달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신호 전달이 나타난다. 다만 CS가 홀로 전달될 때와 달리 신호 전달의 경로가 외측핵 인근의 중심핵으로 이어져 중심핵이 공포 반응을 유도한다.

▶ 이번에는 'US에 의한 뉴런 간의 신호 전달'에 대한 설명이다. CS의 경우와 구분하여 이해하되, 더 나아가 이것이 '뇌 가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문단1-2].

▶ CS에 의한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은 외측핵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중심핵의 뉴런으로까지 전달되지 않고, 외측핵의 뉴런 N에서 신호 전달이 종료된다].

▶ US에 의한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의 경우 외측핵을 넘어, 그 주변 중심핵의 뉴런으로까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CS가 주어지면 공포 반응이 유발되지 않지만, US가 유발되면 공포 반응이 유발된다.

**문단 4 장기 강화**

1) US는 CS와 달리 강한 자극이어서 신호 전달 과정에서 NMDA 수용체뿐 아니라 또 다른 칼슘 채널인 L-VGCC를 통해서도 칼슘 양이온을 유입시킨다.

▶ 더 나아가 US가 주어지면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에 '칼슘 양이온'이 CS에 비해 더 많이[→ NMDA 수용체, L-VGCC가 모두 작용한 결과] 유입된다. US에 의한 뉴런 1에서 뉴런 2로의 신호 전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US가 뉴런 1에 주어진  
 ⇨ 뉴런 1의 시냅스 전막에서 글루타메이트 방출  
 ⇨ 뉴런 2의 시냅스 후막에서 글루타메이트가 AMPA 수용체와 결합  
 ⇨ 뉴런 2에 나트륨 양이온 유입  
 ⇨ 뉴런 2의 탈분극  
 ⇨ 뉴런 2의 NMDA 수용체, L-VGCC 활성화  
 ⇨ 뉴런 2에 칼슘 양이온 더 많이 유입

2) 이때 유입된 칼슘 양이온은 AMPA 수용체의 활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AMPA 수용체의 합성도 촉진한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US가 반복되면 해당 신호 전달 경로의 연결들이 강화되는데, 이를 뇌 가소성에 의한 '장기 강화'라 한다.

▶ 맥락 짚기 X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지문의 초점이기도 한, US에 의해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문단2-4].

▶ L-VGCC에 의해 칼슘 양이온이 더 많이 유입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의 시냅스 후막에서 AMPA 수용체들이 새롭게 합성되고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해당 뉴런으로 그 유형의 신호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기본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자극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로로 신호가 전달된대[문단2-3]. 가령 '전기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면 L-VGCC에 의해 유입된 칼슘 양이온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 경로가 강화된대[문단1-2].

US가 뉴런 1에 주어진 ⇒ 뉴런 1에서 뉴런 2로의 신호 전달 + 연결 강화  
 ⇒ 뉴런 2에서 뉴런 3으로의 신호 전달 + 연결 강화 ⇒  
 :  
 ⇒ 중심핵의 뉴런 N에 신호 전달 ⇒ 공포 반응 유발

3) 특정 CS가 US와 함께 외측핵에 반복 도달할 때에는 둘이 융합된 상태에서 장기 강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장기 강화 후에는 US 없이 CS만 전달되어도 해당 CS가 기존의 경로를 따라감에 따라[- 마치 US도 함께 주어진 것처럼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져서, 중심핵으로까지 신호가 전달되어] 공포 반응이 일어난다.

- ▶ 'US+CS'가 반복된 이후에는 'CS'만 주어져도 공포 반응이 유발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문단-1].
- ▶ 본래 CS에 의한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은 '외측핵'에서 끝나지만, 'US+CS'가 반복되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해당 경로도 강화되고, CS도 '중심핵'으로까지 전달된다.
- ▶ **주목** ▲ 그렇기 때문에 CS만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미 해당 경로가 강화되어 있어서 여전히 중심핵으로까지 신호가 전달된다는 뜻이다.

CS만 뉴런 1에 주어진 ⇒ 뉴런 1에서 뉴런 2로의 신호 전달 ⇒ 뉴런 2에서 뉴런 3으로의 신호 전달 ⇒ 뉴런 3에서 뉴런 4로의 신호 전달 ⇒  
 :  
 ⇒ 중심핵의 뉴런 N에 신호 전달 ⇒ 공포 반응 유발

**문단 5 공포 조건화의 소거**

- 1) 공포 조건화의 지속은 유익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점차 줄어드는 **소거**가 나타난다. 소거는 공포 조건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거 기억이 공포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 지문의 초점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었다. '소거'가 '뉴런 간의 신호 전달'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쉽게 말해서 '공포 조건화가 사라지는 것'과 '공포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 2) 공포 조건화가 일어난 후 CS만 주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대뇌 피질에는 CS와 US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소거 기억**이 저장된다. 이후 CS가 주어졌을 때에는 해당 기억의 작용으로 인해 중심핵 근처의 **ITC 세포군**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방출하여 공포 반응을 억제한다.
  - ▶ '공포 조건화'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CS만 주어져도 '중심핵'의 뉴런에까지 신호가 전달되어 '공포 반응'이 유발된다[문단4-3].
  - ▶ 그런데 CS만 주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소거 기억'이 저장되고, 그로 인해 CS만 주어졌을 때 중심핵의 뉴런에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상황에서 '가바'가 방출된다. 그로 인해 '공포 반응'이 유발되지 않는 것이다.
- 3) 시간이 지남에 따라 CS가 주어졌을 때 **중심핵에 의해 공포 반응이 유도되는 정도보다 가바에 의해 공포 반응이 억제되는 정도가 더 강해지면서** 공포 반응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 ▶ **주목** ▲ '소거'는 '공포 조건화'로 인해 CS만 주어져도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이 중심핵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 '공포 조건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중심핵 근처에서 '가바'를 방출하여 '공포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을 택한다.

CS만 주어짐의 반복 ⇒ 소거 기억 저장  
 ⇒ CS만 주어짐 ⇒ 가바 방출 ⇒ 공포 반응 억제

**<보기>문단**

○ 학습 내용

- 1) 가상의 불안 장애 X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해 장기 강화와 같은 작용이 나타나서, 이후 관련 CS만 제시되어도 공포 반응을 경험하는 공포 조건화의 심리 장애이다.
  - ▶ '공포 조건화'에 대한 설명이다. 즉 US가 아니라, CS만 주어져도 '공포 반응'이 유발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문단4-3에서 살펴봤다.
- 2) X는 공포 반응 시에 과도하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소거 기억의 저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된다.

- ▶ 본래대로라면 '소거 기억'이 저장되어, CS만 제시되어도 '공포 반응'이 유발될 때마다 중심핵의 주변에서 '가바'가 방출되어 공포 반응을 억제하게 된다 [문단5-3].

CS만 주어짐의 반복 ⇒ 소거 기억 저장  
 ⇒ CS만 주어짐 ⇒ 가바 방출 ⇒ 공포 반응 억제

- ▶ 그런데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소거 기억'이 아예 저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CS만 주어짐의 반복[- '공포 조건화'로 공포 반응 유발]  
 ⇒ 스트레스 호르몬 과도 분비 ⇒ 소거 기억 저장 ×  
 ⇒ CS만 주어짐 ⇒ 가바 방출 × ⇒ 공포 반응의 지속

3) X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출 치료**]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환자에게 반복 노출시켜[- CS만 주어지는 상황이 더욱 반복되게 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을 점차 감소시킨다.

- ▶ '노출 치료'의 원리는 간단하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서, 결국 소거 기억이 저장되게 하는 것이다.

노출 치료 ⇒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 소거 기억 저장 ○  
 ⇒ CS만 주어짐 ⇒ 가바 방출 ○ ⇒ 공포 반응 억제

[**약물 치료**] 외측핵에서만 작용하여 NMDA 수용체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약물 D를 복용한다.

- ▶ 반면 '약물 치료'는 아예 '뉴런 간의 신호 전달 과정'에 개입한다[문단3-2]. 즉 신호 전달 자체를 방해하여, 중심핵으로까지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약물 치료**

- ⇒ CS만 뉴런 1에 주어짐
- ⇒ 뉴런 1의 시냅스 전막에서 글루타메이트 방출
- ⇒ 뉴런 2의 시냅스 후막에서 글루타메이트가 AMPA 수용체와 결합
- ⇒ 뉴런 2에 나트륨 양이온 유입
- ⇒ 뉴런 2의 탈분극
- ⇒ 뉴런 2의 NMDA 수용체 활성화 ×
- ⇒ 뉴런 2에 칼슘 양이온 유입 ×

- ▶ 그렇다면 인접한 뉴런으로의 연속된 신호 전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문단3-3]. 따라서 중심핵의 뉴런에 신호가 전달되지도 않고, 공포 반응도 유발되지 않는다[문단4-3].

CS만뉴런 1에 주어짐 ⇒ 뉴런 1에서 뉴런 2로의 신호 전달 × ⇒ 뉴런 2에서 뉴런 3으로의 신호 전달 × ⇒ 뉴런 3에서 뉴런 4로의 신호 전달 × ⇒  
 :  
 ⇒ 중심핵의 뉴런 N에 신호 전달 × ⇒ 공포 반응 유발 ×

○ 학생의 추론 : 장애 X를 지닌 환자의 치료 후 상황을 치료 전과 비교해 보면, [가] 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

∴ 노출 치료가 '공포 조건화'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노출 치료는 '공포 조건화'로 유발된 공포 반응에 의해 과도하게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 양을 줄일 뿐이다. 또한 노출 치료에 의해 '공포 반응이 억제' 되더라도 이는 '중심핵에 의한 공포 반응'이 유도되지 않아서가 아니다[문단5-3]. 따라서 ①번 선지는 적절하다.



[14~17] 예술

## 상상력과 미적 판단에 대한 칸트의 견해

### 지문 평가

의식적으로 '미적 판단'을 인식 판단과 구분하며 이해해야 '상상력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온전히 장악할 수 있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소재 자체가 추상적이나 하나씩 짚어 가며 이해해 보자.

#### Keyword

#### 예술 - 미학 - 칸트, 상상력

플라톤, 칸트, 개념화, 감성, 직관, 지성, 상상력, 인식 판단, 미적 판단, 쾌의 감정, 자유로운 유희, 미적 이념, 바로크풍의 예술, 낭만주의 예술

### 문단 ① 서양에서의 상상력에 대한 평가

- 1) 서양에서 '상상력'은 오랫동안 환상이나 망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곤 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은 감각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허상인 **상상**이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고 여겼으며, 이는 **상상력에 기초한 예술 활동에 대한 폄하**로 이어지기도 했다.
  - ▶ '상상력'에 대한 서양의 전통적인 통념을 제시하고 있다. '상상력'에 대한 인식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의식해야 한다.
- 2) 상상력의 가치와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미적 판단**과 관련하여 상상력에 대해 연구한 칸트에 의해서였다.
  - ▶ '칸트'가 인간의 능력 중 하나인 상상력을 어떤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지문의 초점으로 삼으면 된다.

### 문단 ② 인식 판단에서의 상상력

- 1)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감각 자료**를 **개념화**함으로써 세계를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감성, 지성, 상상력**이 있다.
  - ▶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감성, 지성, 상상력 덕분에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 '감각 자료'들을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상상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있을 것이다.
- 2) **감성**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표상인 직관**을 형성하는 능력이며, **지성**은 **보편적인 개념을 사유하는 능력**이다.
  - ▶ 인간은 '감성'을 통해 '감각 경험'에서 '직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지성'에 의해 '개념'을 사유할 수 있다.
  - ▶ 즉 '감각 자료'의 개념화[→ 세계의 인식은 '감성'에 의해 형성된 표상이 '지성'에 의해 '개념'으로서 사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3) 그런데 개념은 경험적 요소를 담고 있지 않아서 직관과 직접 연결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매개하는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 ▶ 개념화가 가능하려면 감성이 표상한 '직관'이 지성이 사유한 '개념'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즉 '감각 경험' ⇒ '직관' ⇒ '개념'이 가능해야 한다.
  - ▶ 그런데 문제는 '개념'이 경험과 관련 없는 요소라서 '감각 경험'과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거꾸로 말하면, 감성은 '감각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까지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직관'과 '개념'을 연결해야 '개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칸트는 '상상력'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감성: 감각 경험 ⇨ '직관'
- 지성: '개념' 사유
- 상상력: 직관 ⇨ 개념[→ 개념화]

4) **상상력**은 대상이 눈앞에 있지 않는데도 직관을 떠올리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무질서하고 잡다한 직관들을 하나의 표상으로 종합하여 개념화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 즉 '감성'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직관을 떠올린다면, '상상력'은 경험하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도[→ 대상이 눈앞에 있지 않을 때도] 직관을 떠올리는 능력이다.

**참고** ▼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볼 때 단 하나의 직관만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과 하나를 관찰하더라도 사과라는 사실이 바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모양, 색깔, 향기 등 다양한 직관이 무질서하게 먼저 형성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과가 개념적으로 처리되려면 이러한 여러 직관을 단 하나의 표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념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합이 이루어지는 데에 상상력이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 문단 3 미적 판단에서의 상상력

1) 그런데 칸트는 미적 판단의 경우 이 같은 통상적인 **인식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상력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맥락 읽기** ▲ '미적 판단'과 '인식 판단'→ 문단2]을 구분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중에서도 '미적 판단에서의 상상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상력의 가치와 역할'은 미적 판단에서 부각되기 때문이다[문단 1-2].

2) **미적 판단**은 대상의 용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객관적 성질에 부합하는 개념을 찾는 판단인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판단 주체의 주관적인 쾌(快)의 감정을 낳는 작용이다.

▶ '미적 판단'에 대한 설명이다. 반대로 '대상의 용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객관적 성질에 부합하는 개념을 찾는 판단'은 '인식 판단'에 대한 설명임을 추론할 수 있다.

- 인식 판단 : 대상의 용도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객관적 성질에 부합하는 개념을 찾는 판단
- 미적 판단 : '상상력'에 의해 판단 주체의 주관적인 쾌의 감정을 낳는 작용

**주목** ▲ 인식 판단의 목적이 '개념화'에 있다면 미적 판단의 목적은 '쾌의 감정'에 있다. 또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인식 판단에서 '상상력'은 감성과 지성을 연결하는, 필요하지만 부차적인 역할을 했다면, 미적 판단에서는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3) 칸트에 따르면 **쾌의 감정**은 대상과 관련된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조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적 판단에서는 지성의 구속력이 줄어들고 상상력의 작용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 '대상과 관련된 기존의 개념'을 찾는 것은 '인식 판단'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쾌의 감정'은 상상력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해진다.

▶ 즉 '인식 판단'에서의 상상력은 필요하지만 지성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면, '미적 판단'에서의 상상력은 인식 판단에서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된다.

- 인식 판단 : 지성 > 상상력
- 미적 판단 : 지성 < 상상력

4) 다만 이때에도 지성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상상력과 지성은 '자유로운 유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인식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에 형성된 표상은 개념이 아닌 **쾌의 감정**으로서 판단 주체에게 전달된다.

▶ '인식 판단'에서는 감성에 의해 형성된 표상이 개념화된다면, '미적 판단'에서는 표상이 '주관적인 쾌의 감정'으로서 전달된다.

**주목** ▲ '미적 판단'에서 '지성 < 상상력'이라고 하더라도 '지성'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유희', '조화를 이룰 때'와 같은 표현을 행겨 주자.

### 문단 4 자유로운 유희의 과정에서 상상력의 작용과 미적 이념

1) 칸트는 상상력이 인식 판단에서 재생적 속성을 띠다면, **자유로운 유희의 순간에는 생산적 속성을 띠는다고 보았다.**

**맥락 읽기** ▲ '인식 판단'과 '미적 판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유희'는 미적 판단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문단3-4]. '재생적 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생산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성의 구속을 받을 때에 상상력은 개별 대상이 그와 동일한 종류의 것들이 지닌 **기존의 보편성**에 포섭되도록 돕지만, ……

▶ '인식 판단'에 대한 설명이다. 인식 판단에서 '상상력'은 개별 대상으로부터 얻은 '직관'을 '개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문단2-4]. 그로 인해 개별 대상은 '그 객관적 성질에 부합하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문단3-2].

▶ 이때 '기존의 보편성'에 포섭되도록 한다는 점과 기존의 것을 되돌이킨다는 점에서 '재생적' 속성을 띠는다고 하는 것이다.

3) …… **지성이 상상력에 부응할 때에는 개별적인 것의 표상에서 새로운 보편성을 찾아내는 작용이 상상력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 '미적 판단'에 대한 설명이다. 미적 판단에서 '상상력'은 개별 대상의 표상을 '기존의 보편성'에 포섭시키는 대신에, '새로운 보편성'을 찾아낸다. 그래서 '생산적' 속성을 띠는다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개념화'라고 생각해도 된다.

4) 칸트는 이때의 새로운 보편성을 **미적 이념**이라 불렀는데, 칸트에 따르면 특정 쾌의 감정은 판단 주체가 접하는 특정 대상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는 마치 어떤 미적 이념의 한 예시인 듯이 판단 주체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 이렇게 '미적 판단'에서 찾아내는 '새로운 보편성'을 '미적 이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적 판단'은 판단 주체에게만 '주관적인 쾌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임에도[문단3-2], 미적 이념이라는 보편성의 한 예시로서 받아들여진다.

### 문단 5 무한정한 상상력에 대한 칸트의 태도

1) 하지만 칸트는 미적 판단의 상황에서도 상상력이 제어되지 않은 채 무한정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성과 상호 작용 하지 않은 상상력의 결과물은 기괴함으로 치달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과장되고 무규칙적인 **바로크풍의 예술**에 대해 **미적인 쾌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리를 두었다.

▶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자유로운 유희'에서 지성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문단3-4].

▶ 따라서 칸트는 지성에 의해 상상력이 제어되지 않는 것과 같은 '바로크풍의 예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사후에는 보편적인 미의 관념을 부정하고 즉흥적이고 격정적인 경향을 띠는 **낭만주의 예술** 등이 본격화되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미를 표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주목** ▲ 다만 '칸트 사후'에는 '보편적인 미의 관념'이 부정되었다[→ 미적 판단이 보편적인 미적 이념을 찾아내는 작용이라는, 칸트의 생각이 사실상 부정되었다.]

▶ 낭만주의 예술 등을 통해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강조되었다. 이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상상력이 제어되지 않은 채 무한정 펼쳐지는 것'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미술사에서 상상력은 시대별로 그 가치가 변해 왔다. 예술가의 상상력은 물감, 돌, 나무 등 창작의 재료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시대적 이념의 구속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 시대별로 '상상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고 있다. 지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하다.

|              | 상상력                           |
|--------------|-------------------------------|
| 칸트 이전[→ 문단1] |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것                 |
| 칸트[→ 문단2~4]  | 세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미적 판단의 핵심 |
| 칸트 사후[→ 문단5] |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통한 미의 표현           |

2) 바로크풍 이후에 등장한 신교전주의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엄격하고 안정감 있는 구도, 조화와 균형의 미를 중시했는데, 예술가의 상상력은 그러한 형식적 규율의 영향력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휘되었다.

▶ '신교전주의'는 칸트 사후인 문단5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상상력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목** ▲ 칸트는 '자유로운 유희'에 의해 상상력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 만큼[문단3-4], 이러한 '상상력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문단5의 '상상력이 제어되지 않은 채 무한정 펼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3) 이후 절대 권력이 약화되고 혁명 세력 간의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는 낭만주의가 도래했고, 이 시기에 상상력은 창작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 규칙이 없는 다양한 창작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

▶ '낭만주의 예술'에 대해서는 문단5의 설명을 참고하면 된다.

∴ 칸트의 입장에서 '낭만주의 예술'은 '상상력'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자유로운 유희'에서는 상상력이 어느 정도 지성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㉞번 선지는 적절하다.

[21~26] 현대소설

(가) 「봄·봄」

- 김유정 -

수록 지문 평가

해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소설이다. 어리숙한 인칭 서술자 '나'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주목해서 읽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데릴사위인 '나'는 마름(= 땅의 주인인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인 장인이 자신을 부려 먹기만 하고 혼인을 시켜 주지 않는다고 여겨, 구장을 찾아가 사정을 호소하는 한편 그 앞에서 장인에게 무안을 준다.

토막 ① 구장이 설득하는 '나'의 상황

그러나 이밖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껌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몽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부치니까[→ 구장이 '나'를 설득하게 된 이유] 그래 껌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어리숙한 서술자의 모습].)

▶ 수록 지문 이전 부분에서 '나'는 장인과 함께 구장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장인이 사례를 시켜 주지 않으니 사정을 받아야겠다고 한다. 장인으로서의 데릴사위라는 명목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어리숙한 '나'를 싣기 부려 먹었는데 일꾼도 잃고 돈도 잃을 판이니, 마름인 장인의 비위를 거스룰 수 없는 구장을 껌어 '나'를 설득하도록 한 것이다.

“자네 말두 하기야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네 게 잘 못된 말은 아니야.[→ 나이가 있으니 얼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나'의 입장에 수긍함]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법을 들먹여 '나'를 압박하는 구장]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구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텐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더욱 압박감을 주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산에 불을 놓은 것과 농사일을 하지 않은 것은 경우가 전혀 다르므로, 껌변이다.] 그리고 자넨 정장(= 소장을 관청에 냄)을(사경(= 머슴이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나'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말]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 법적으로 혼인할 나이가 안 됨]이 아난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두 사례를 시켜 주겠다 하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붓던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구장이 '나'를 구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껌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작인(= 소작인)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특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물질을 중시하고 어설픈 권위를 부리는 장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까짓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나가 장인의 눈치를 보는 이유]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몽태네 집에 마슬 간[→ 놀러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중략)

## 토막 ② 몽태가 들려주는 '나'의 상황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읊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몽태의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사위를 해 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 살 때부터 열아홉, 즉 십 년 동안에 데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 십년간 총 열 명의 데릴사위를 계속 갈아들이는 장인에 대한 별칭]라고 이름이 낯지마는 열 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담 딸을 데릴사위를 해 올 때까지는 부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퀴 들였다. [→ 장인이 계속 데릴사위를 바꿔 들인 이유] 또 한편 놈들이 육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 먹으니까[→ 데릴사위들을 바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온 장인] 뱀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데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 [→ '나가 점순을 포기하면 네 번째 데릴사위를 들일 장인]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나'의 성격]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여섯 살, 적어두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 먹어야 된다.[→ 앞으로 4년은 점순과 성례를 시켜 주지 않고 일단 시킬 것이라는 의미] 그러니 인제는 속 좁 차리고 장가를 들어 달라구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 몽태가 들려준 이야기를 서술자인 '나'가 요약해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인은 돈을 아끼려고 머슴 대신 데릴사위를 들이고, 그들이 딸을 포기하면 새로운 데릴사위를 들이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 그 때문에 몽태는 '나'에게 바보처럼 당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장인에게 저항하며 점순과의 혼례를 요구하라고 조언한다.

▶ '나와 장인의 이러한 관계는 부조리한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던 당대 농촌의 계층 갈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 서술자인 '나'의 어수룩한 시선 및 작품의 해학적인 문체 덕분에, 이러한 갈등은 불편하다기보다는 희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는 건성으로 영, 영, 하며 꺾등으로 들었다. 몽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름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줌먹은 걸레)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몽태의 조언을 건성으로 들은 이유]

▶ 과거 농촌에서는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의 위세가 강했으며, 마름이 소작권을 빌미로 소작농들을 수탈하거나 소작농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도 많았다. 구장과 몽태가 처한 상황에서도 마름인 장인의 횡포를 엿볼 수 있다.

[27~30] 고전시가

## (나) 「덴동 어미 화전가」

— 작자 미상 —

### 수록 지문 평가

수록 지문은 덴동 어미가 청춘과부에게 들려주는 자신의 인생사 중 세 번째 남편을 잃은 직후의 상황으로, 주막 뒷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세 번째 남편이 죽자 삶의 의욕을 잃은 덴동 어미에게 주인덕 여자가 다시 한번 팔자를 고쳐서[→ 개가 해서 잘 살아 보라고 위로하며 설득하는 부분이다. 즉 이 부분의 화자는 주인덕 여자이고 청자는 아직 자식이 없는 처자인 덴동 어미이다.]

세상일은 모르나니 그런대로 살다 보게

다른 말 할 것 없이 저 꽃나무 두고 보지

▶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니 살다 보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조언을, '꽃나무'의 경우를 들어 전하고 있다.

이삼월에 춘풍 불면 꽃봉오리 고운 빛을

별은 앵앵 노래하며 나비는 펄펄 춤을 추고

나그네는 왕왕 놀다 가고 산새는 앵앵 흥락(興樂)이라[→ 봄 꽃나무의 모습]

▶ 봄바람이 불어 꽃이 필 때에 벌, 나비, 나그네, 산새가 꽃나무 주위에서 고운 꽃빛을 즐기는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뉴월 더운 날에 꽃은 지고 잎만 남아

녹음이 가득하여 좋은 경치 별로 없다[→ 여름 꽃나무의 모습]

▶ 여름 꽃나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녹음이 가득한 것을 좋은 경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꽃나무에게 있어 가장 좋은 시절은 꽃 피는 봄이라고 생각한다.

팔구월에 추풍 불어 잎사귀조차 떨어진다[→ 가을 꽃나무의 모습]

동지설달 설한풍(雪寒風)에 찬 기운을 못 견디다가[→ 겨울 꽃나무의 모습]

다시 춘풍 들이불면 부귀춘화 후후홍(富貴春花雨後紅, 풍성한 봄꽃이 비 내린 후에 붉게 피는 것)을

▶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꽃나무가 다시 풍성하게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화자는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꽃나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봄에서 겨울까지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봄이 왔을 때를 말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네[→ 덴동 어미] 신세 생각하면 설한풍을 만남이라

▶ 꽃나무의 경우에서 유추하여 사람의 세상살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덴동 어미가 세 번째 남편마저 불의의 사고로 잃은 상황을 꽃나무가 겨울의 '설한풍'을 만난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덴동 어미가 인생에서 가장 심한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겨울이 가고 나면 다시 봄이 온다고 했던 앞의 말을 떠올리면, 뒤에 이어질 말을 예상할 수 있다.

흥진비래(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옴) 하온 후에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즐거움이옴) 할 것이니

▶ 계절의 순환 속에서 변화하는 꽃나무의 모습처럼 사람도 흥진비래하고 나서 고진감래할 것이라는 말이다.

팔자 한번 다시 고쳐 좋은 바람을 기다리게

▶ 네 번째 개가를 권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개가해서 인생의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라는 말이다.

꽃나무같이 춘풍 만나 가지가지 만발할 제

향기 나고 빛이 난다 꽃 떨어지자 열매 열어

그 열매가 종자 되어 천만 년을 전하나니

귀동자 하나 낳으면 수부귀 다자손(壽富貴多子孫, 부귀하게 장수하며 자손이 번성함)하오리라

▶ 꽃나무의 열매가 종자 되어 계속 번성해 가듯이, 다시 한번 개가해서 자식을 낳아 자손의 번성과 부귀 장수를 누리 보라는 것이다.

▶ 참고 자료

▶ 이해와 감상

원래 제목은 '화전가'이지만, '덴동 어미'라는 작중 인물의 인생 이력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흔히 '덴동 어미 화전가'라고 불린다. 춘삼월에 마을 여인들이 함께 화전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제시된 후에, 갑자기 울고 있는 '청춘 과부'에게 '덴동 어미'가 네 번의 상부(喪夫, 남편의 죽음을 당함)와 세 번의 개가(改嫁,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함)를 겪은 자신의 인생 이력을 들려주며 충고하는 말이 길게 제시되고, 그에 대한 '청춘 과부'의 대답이 나온 후에, 모두 함께 다시 화전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제시된다.



이 감상